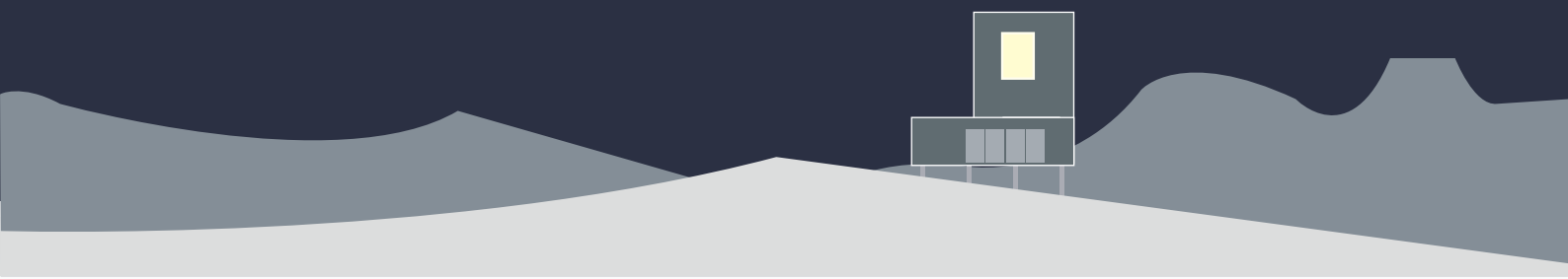
VALUE INVEST KOREA

2017년 08월 넷째주



와이랩

로커스

헤드플레이

딜라이트

선재하이테크

VENTURE STORY

와이랩, 제17회 대만 만화박람회 한국기업피칭 참가

■ 한국만화영상진흥원, '2017 제18회 대만 만화박람회' 참가

- 한국만화영상진흥원(이사장 김동화)은 한국 만화콘텐츠 기업의 대만 시장 진출을 지원 및 대만 내 한국 만화의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대만 타이베이시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린 '2017 제18회 대만 만화박람회'에 참가.
-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약 70만 명의 일반인 관람객과 국내외 만화콘텐츠 기업들이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서 〈한국웹툰홍보관〉, 〈작가 사인회〉, 〈한국-대만 콘텐츠 비즈니스 상담회〉를 진행
- 한국-대만 양국 간 만화 콘텐츠 산업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 〈한국-대만 콘텐츠 비즈니스 상담회〉회는 와이랩 등 6개 한국 기업이 직접 한국 만화콘텐츠를 소개하는 '피칭쇼' 그리고 저작권 및 판권 수출을 위한 '1:1 비즈니스 상담회'로 구성.
- 상담회에는 대만 대형 콘텐츠 기업인 스프링하우스엔터테인먼트, 바비러스네트워크과주식유한공사, 링왕과기주식유한공사 등을 포함해 총 15개(한국 6개, 대만 9개)의 한국-대만 콘텐츠 기업이 참석해 약 40회 이상의 비즈니스 상담 실적을 달성
- 글로벌 만화콘텐츠 비즈니스 플랫폼 'K-WEBTOON' 시연회도 진행

※ K-WEBTOON

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해외 만화콘텐츠 관계자 및 독자들에게 한국 웹툰을 소개하고, 한국 만화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온라인 플랫폼. 2017년 말까지 450여 개의 콘텐츠가 업로드 될 예정. 대만 현지의 만화콘텐츠 관계자들은 K-WEBTOON을 '글로벌 콘텐츠 교역의 허브'라 칭하며, 향후 웹툰콘텐츠 교역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

참고 : 아크로팬

로커스게임즈, IP활용한 신작 프로젝트 준비

■ 로커스게임즈, 신암행어사 IP 게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신작 준비

- 로커스게임즈가 '신암행어사' IP를 이용한 RPG를 비롯해 다양한 신작 프로젝트를 준비 중
- 모바일 실시간 전략대전 게임과 캐주얼 게임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부문의 인력을 채용 중
- 모바일 실시간 전략대전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'게임개발 1팀'은 기획자, 아티스트, 서버 프로그래머,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, 원화가, 애니메이터, TA, QA, PM 등 인력 채용 중
- 모바일 캐주얼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'게임개발 2팀'은 UI 디자이너, 클라이언트, WA, PM 등 인력 채용 중
- 지난 2016년부터 대작급 모바일 RPG도 개발 중 (만화 '신암행어사' IP를 이용한 게임)
- 웹툰 '카페드쇼콜라' IP를 이용한 게임을 선보인 바 있으며, 지난 지스타 2016에서 '신암행어사'를 이용한 작품을 공개

출처: 헝그리앱

펀치라인, 양우석 감독의 기획 웹소설 '태안' 공개

■ 웹소설 플랫폼 '펀치라인', 양우석 감독 기획 '태안' 공개

- 영화 '변호인', '강철비'의 양우석 감독이 기획한 '태안 기름 유출 사건' 10주년 기념 웹소설 '태안'을 공개

▶ 웹소설 '태안'

- 구성 : 총 57화
-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벌어진 기름 유출 사건을 평범한 사람들의 시선에서 밀도 있게 그린 드라마
-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맞닥뜨린 태안의 공무원, 주민들 그리고 태안을 돕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고군분투를 통해 다양한 인간 군상의 희로애락과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담을 예정
- 양우석 감독이 약 3년여에 걸친 오랜 고민과 준비 끝에 내놓은 결과물로 양우석 감독의 기획에 공감한 이진이 작가의 합류로 완성
- 이진이 작가 : 계명대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이자 방송 다큐멘터리 전문가로 그간 TV와 라디오를 넘나들며 역사와 문화에 대한 다수의 집필 활동을 펼쳐온 중견 작가
- 양우석 감독은 "태안은 태안 기름 유출사고의 사회적 의미를 오래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"이라며 "보다 많은 이들이 함께 태안의 기억을 나누고 의미를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확산성이 높은 웹소설로 공개하게 됐다"고 언급
- '태안'은 웹소설로 독점 선공개된 후 드라마 등의 형태로 영상화될 예정

참고: 연합뉴스

딜라이트 보청기, 창업설명회 개최

■ 딜라이트 보청기, 8월 24일 맞춤 창업 설명회 개최

- 딜라이트㈜가 오는 8월 24일 본사에서 제1회 창업설명회를 갖을 예정
- 이번 창업설명회는 전반적인 시장 분석, 보청기 브랜드 선택 시 고려할 점과 유의해야 할 점,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보청기센터 성공 노하우, 창업 비용 및 기대 수익률 등 딜라이트 보청기 예비 창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모두 공개할 예정
- 본사와 점주 모두 함께 성공하는 보청기 센터 창업을 위해 예비점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독자적인 국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딜라이트 보청기 본사를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
- 딜라이트 보청기는 현재 국내 19개 보청기 센터와 해외 현지 법인을 오픈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어린이병원, 종합병원 등과 협약을 맺는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음
-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보청기 해외수출을 위해 꾸준한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

참고 : 네이버뉴스

양수도

세미콘웨스트(Semicon West) 2017에 참가

■ 선재하이테크, 세미콘웨스트(Semicon West) 2017에 참가

- 2017년 7월 11일~15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SEMICON WEST 2017에 참가
- Semicon West는 최신 반도체의 동향을 한 눈에 알수 있는 전시회로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선재하이테크는 뛰어난 정전기 제거 기술을 선보이며 성황리에 전시회를 마무리
-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인 SEMI는 세미콘웨스트(SEMICON West)에서 2017년 글로벌 반도체 장비 출하량에 대해 발표
  → 2017년 글로벌 반도체 장비 매출은 494억 달러로, 지난 2016년(412억 달러) 대비 19.8%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8년은 이보다 7.7% 높아진 532억 달러로 예상
- 올해 눈에 띄는 시장은 한국. 5년 연속 1위를 기록한 대만을 제치고 처음으로 한국은 지역별 매출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
  → 한국은 2018년에도 134억 달러의 매출로 지역 중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, 한국, 중국, 대만이 톱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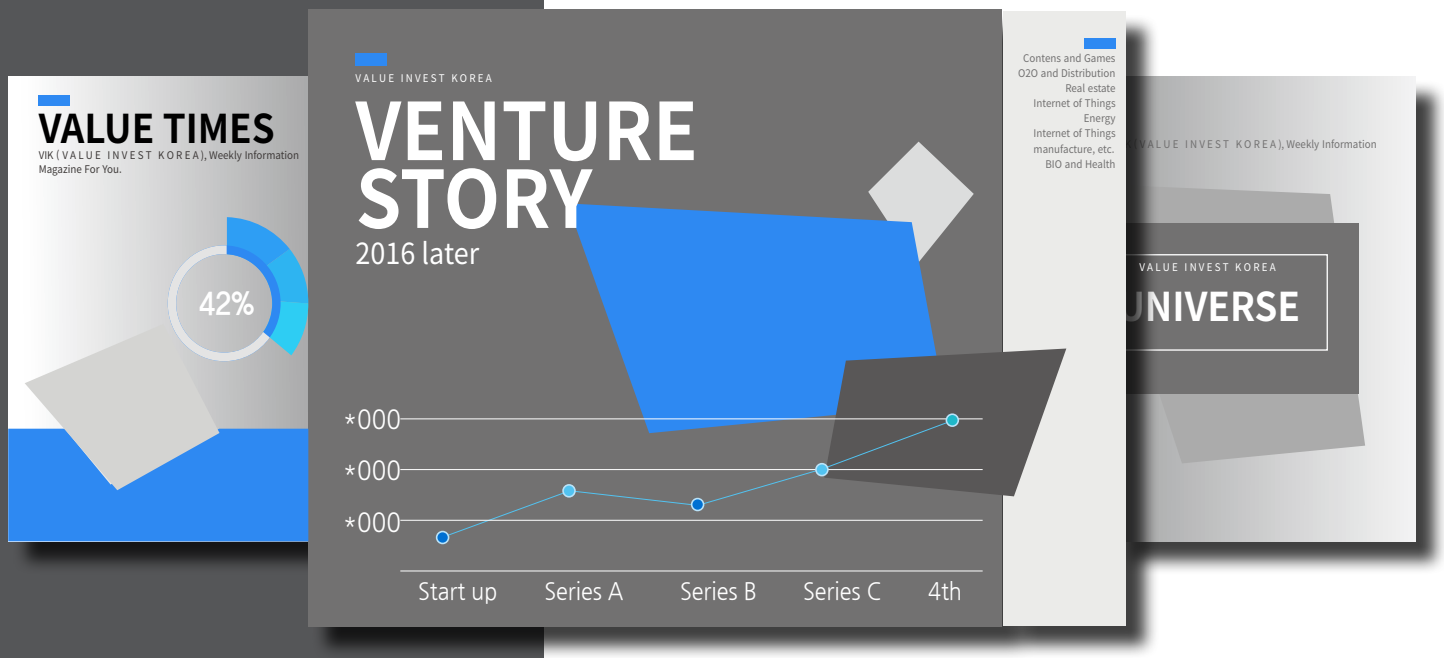
참고 : 한국일보

양수도

VALUE INVEST KOREA

VENTURE STORY

제9회 2017.08.23



- 한국형 엑셀러레이터 '순항'…민간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 '
- "벤처로, 스타트업으로"…증권사, 새 먹거리 찾아 삼만리

엑셀러레이터

창업 아이디어나 아이템만 존재하는 단계의 신생 스타트업을 발굴해 업무공간 및 마케팅, 홍보 등 비핵심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를 이른다.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는 창업 기업에 사무실,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마케팅 · 전략 등 각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들을 멘토로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. 이는 벤처 인큐베이터와 비슷한 개념이지만, 벤처 인큐베이터가 엑셀러레이터보다 앞서 창업 직후의 초창기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기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.

특히 3~4개월간의 지원 프로그램이 끝나면 언론과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자리(데모 데이, demo day)를 마련해 준다. 이 자리에서는 보통 회사가 진출하려는 시장이 직면한 과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방향, 현재까지의 사업 성과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다.

한국형 엑셀러레이터 '순항'

민간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

-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(Aceelerator·창업기획자)제도가 시행 반년만에 활성화

- 지난해 11월 액셀레이터제도를 도입한 이후 8월 현재까지 총 37개가 등록.엑셀러레이터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해 엔젤투자와 사업공간, 멘토링 등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획자를 의미
  → 창업기업은 사업화 경험과 네트워크와 자본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엑셀러레이터는이러한 창업자의 부족한 점을 보완

-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, 상근 인력 2인 이상 보육시설 등 일정조건이 갖춰지면 엑셀러레이터에 등록할 수 있으며 대신 창업초기기업에 1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3개월 이상 지원하며 전체 투자금의 50%이상을 초기창업자에 집행해야 하고 정부는 등록된 엑셀러레이터에게 세제혜택과 개인투자조합 결성 권한을 제공

- 민간 중심 창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해 액셀러레이터 제도를 도입.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월 4개의 액셀레이터 등록을 시작으로 매달 4~5개의 액셀러레이터가 설립

- 국내외 벤처캐피탈(VC)도 초기창업자를 직접 발굴·육성하기 위한 액셀러레이팅 활동도 확대
  → 국내VC로는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가 25호로 등록
  해외VC로는 영국 킹슬리캐피탈의킹슬리벤처스, 미국 페녹스벤처캐피탈의페녹스코리아가참여

Start up Company

스타트업 컴퍼니(startup company) 또는 스타트업(startup)은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뜻한다.
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난 용어로서,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되지 않은 창업 기업이다. 자체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있는 작은 그룹이나 프로젝트성 회사이다.

이러한 회사들은 대부분 신생이며,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찾아나서는 데 주력한다.

스타트업이란 용어는 닷컴 버블 이후 함께 등장하는데, 당시에는 닷컴 회사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였다.

벤처로... 스타트업으로...

증권사 새먹거리 찾아 삼만리

- 벤처 투자시장이 춘추전국시대에 돌입할 전망. 정부가 벤처투자 육성을 위해 증권사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주면서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는 모습
  → 창업 초기 기업을 선별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증권사로선 그간 상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 발굴과 기업공개에만 집중해왔지만, 틈새시장 공략과 새 먹거리 확보 차원으로 벤처투자에 입성

-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이 현재 VIP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탁형 벤처펀드 투자를 진행 중. 신탁형 벤처펀드는 벤처투자를 원하는 증권사 고객을 따로 모아 벤처펀드에 재간접 형태로 투자하는 형태

- 지난해 12월 정부가 벤처펀드 출자자수 규정 문턱을 낮추면서 확산 중 (관련법 개정에 따라 신탁 또는 펀드 투자자수와 관계없이 1명으로 간주해 벤처펀드 투자가 수월해 짐)
  → 기존에는 증권사 신탁을 포함해 자산운용사 펀드(집합투자기구)가 벤처펀드에 투자할 때 해당 투자자를 전부 집계해 벤처펀드에 투자

- 새 정부도 중소기업벤처부 신설과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설립 등으로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시스템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증권사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벤처투자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차원으로 대상을 물색 중
  → 비상장 스타트업(창업 초기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경험치와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빠른 성과를 내긴 어렵지만 벤처캐피탈업계와의 협업과 경쟁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